

목회의 프락



정용영 목사
청문성교회 담임

“혼자서는 질 일도 돌아서는 당해 낼 수 있으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는 사역하면서 느낀 것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만 말한다면 교회는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 플레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고 팀플레이를 잘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사실은 직분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

한 흥미 있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2004년 유럽 축구 챔피언십 대회 우승 팀은 유령의 강호들이 아닌 그리스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분석에 의하면 다른 유럽 팀들은 스타 플레이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경기중의 공의 배분도 그들 위주로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 팀은 스타 플레이어가 없어서 선수 모두가 골고루 공을 가지고 팀워크에 의존 했었다는 것입니다. 팀의 스타 플레이어가 누군지가 드러나 있던 팀은 상대방이 그들만 잘 막아내면 경기를 주도할 수 있었지만 그리스 팀에게는 스타 플레이

혼자 갈까? 함께 갈까?

합니다.

협동 정신과 자기 헌신은 세상의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없다면 그 능력은 훌륭한 조직에 기여할 만한 팀원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어떤 회사나 기관에 속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방해꾼으로 낙인 찍혀 퇴출대상이 될 것입니다. 미국 프로 야구 리그에서 활약했던 김병현 선수가 마이네리기로 내려갔을 때 그 이유를 언론들이 보도하기를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코치 말은 안 듣고 다른 선수들과는 친하게 같이 안 지내고 자기 잘난 풀만 알고”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는 당사자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팀워크를 말할 때 야구와 축구를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야구는 투수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운동으로 투수만 잘 던지면 이기는 경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축구는 한 두 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아무리 잘해도 나머지 선수들이 잘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좋은 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운동경기 운영에 대한 경영학적 진단을

어가 없는 대신 팀 전술에 모두가 참여하여서 공의 흐름을 다양하게 바꾸면서 경기를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팀들이 그리스 팀의 전략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뜻도 됩니다.

교회도 야구 보다는 축구 경기에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공 가진 사람만 뛰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모두가 같이 한마음 한 뜻으로 뛰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자기에게 공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이 어디로 움직일지 미리 파악하고 그 자리에 자기가 서야 합니다. 몇 사람의 일꾼에만 의지하는 교회는 인적 자원들의 은사 활용이 낮으며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구경꾼이거나 해방꾼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 팀 플레이어입니다. 하나님 팀의 승리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마음과 남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기쁨도 함께 뛰며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인 교회는 신앙 공동체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목적을 위한 연합체요,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진 우리이지만 한마음으로 주님께 같이 나아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주의 추천도서



오직 예수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살려주세요, 사용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살려주세요, 사용해주세요!!”

돌아갈 곳이 없다, 내겐 아무도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20년 세상 중독 쓰레기 인생에서 예수 중독으로, 오직 예수가 결론이 된 저스트 지저스 교회 브라이언박 목사의 His Story

[출판사 서평]

우리는 명예, 재정, 건강, 행복을 바라서 세상에서 분투한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 있지 않다. 우리가 이루기 원하는 모든 삶의 정답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함 안에 들어 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된다. 이 책은 CTS 기독교TV <콜링자>의 진행자로 잘 알려진 방송 기도 사역자 브라이언박 목사의 첫 책이다. 그는 미국을 기반으로 해외 순회 부흥사와 방송 사역자로 활동했다. 현재 가상교회이자 유튜브 채널인 ‘저스트 지저스’의 대표 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이 책은 그가 세상 성공과 실패, 중독의 나락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었는지 극적으로 간증한다. 그가 만난 크고 높으신 하나님, 지금도 만나고 있는 좋으신 하나님, 그를 치료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His story)로 가득하다. 그는 자신이 만나고 체험한 분을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가지 문제에 유일한 해답이신 ‘오직 예수’만 증거한다. 절대 신뢰 오직 예수, 우리 하나님 안에 만물의 회복이 있다는 복음을 온 인류를 향해 전하고 있다.

[프롤로그]

저는 오직 예수로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삶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31년의 삶을 돌아보며 ‘오직 예수’로 새로워진 삶, ‘오직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법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히 2:17)

그런데 이 말씀을 영어성경(NIV)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람들과 너무나 비슷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으로 만드셨다고, 예수님이 사람들과 똑같이 모든 것을 체험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 4:15)

책 읽기 살리기



김병모 저/IV퍼블

무더워진 날씨가 성큼 다가온 6월을 보내며 마음 한 켠에 남아 있었던 목직 한 무언가가 속 내려간 느낌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다. 희망과 기대가 힘들었던 몇 달간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이 되는 시기를 보내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살아가기 좋은 세상이 찾아오기를 기대해본다. 이러한 기대와 열원을 담아 책 한권을 소개하고자 한다.

“환대의 신학”의 저자는 김진혁 교수이다. 그는 연세대학교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에큐메니컬 연구소 연구원, 런던 대학교 헤이스롭 칼리지 박사

후 연구원, C.S.루이스 연구소에서 상주 연구원으로 일했다. 현재 켈블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조직신학, 철학, 윤리를 가르치고 있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 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복음 전파가 어렵고 점점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아지는 위기의 시기에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다시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 그의 표현을 빌려본다면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환대가

근본적으로 나의 익숙한 세계, 나의 안전지대, 나의 기득권을 넘어서는 행위이고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 자기 희생적인 차원을 포함한다고 이야기 한다. 그래서 환대는 단순히 친절함을 넘어, 자신을 내어주는 윤리적인 영적인 실천이 된다고 말한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서 어느 한 가지로 단순하게 구분 지을 수 없는 다양한 가치관들이 혼재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교회나 사회

모두에게 변화를 일으키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데 까지 이르러 된다고 이야기 한다. 마치 신약시대에 예수의 환대를 통해 사회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자들이 세움을 받는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데 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나와 익숙하지 못한 것에 거부감을 느끼며 배타적이며 분열된 삶을 살아왔는지 모른다. 그것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사회의 극심한 분열로 나타나고 있는지 모른다. 배제와 차별을 극복하고 낯선 것을 더 포용하는 교회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지 모른다. 공동체를 살리며 복음을 풍성히 나누기 위해 환대의 신학을 오늘 한번 실천해 보면 좋을 듯 하다.

환대의 신학

는 ‘낯선 자’에 대한 배타성이 갈수록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경계를 통해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며 이민자나 소수자는 배제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낯선 자에 대한 환대 부재는 차별과 폭력을 야기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며,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기에 이른다. 저자는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며 환대는 기독교 신학의 핵심적인 부분임을 강조하며 구약과 신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대의 뿌리를 소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환대는 환대하는 자와 받는자



김병모
한국신로인교회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션21 구독 및 광고 문의

T. 062)367-9109 F. 062)367-9108

대한예수교장로회

2025학년도 총회신학 신·편입생 모집

본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인준 정통 보수주의 신학연구원입니다. 청교도적 개혁주의 보수신학의 요람으로서 신학과정을 이수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강의를 중심으로 말씀의 기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성실한 길잡이가 되도록 본 총회신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장 신혜란 목사

대표전화

062)511-2491
010-3161-2491
http://www.gchongsin.com

원서교부 및 접수처

원서교부 : 광주, 전주, 순천 총회신학
원서접수 : 수시 접수
*전형료는 없음

총회신학의 장점

최고의 교수진이 있습니다.
남·여 목사안수 / 각종 장학혜택
교회개혁 및 설립인허, 법인등록 등
각종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문의

광주 062)511-2491
전주 063)272-2491
순천 061)751-2491
수양관(곡성) 061)362-2491

통신과정

1. 시간, 지역,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석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사망자는 통신으로 전과정을 이수하고 목사고서를 거쳐 안수 받을 수 있습니다.
2. 능력별로 이수하므로 조기에 졸업할 수 있습니다.

365일 언제나 입학가능! 실패, 학비, 나이 학력
모든 걱정 내려놓으시고 오세요!

과정	모집학과	학제	모집인원	자격
신학부	신학과 (주말반, 야간)	8학기	30명	고졸, 새예받은 자 전문대졸자는 3학년 편입가능
	목회학과 (주말반, 야간)	8학기	20명	새예받은 자, 평신도, 사망자
신학연구원	신학과 (주말반, 야간)	6학기	00명	신학부 졸업 및 졸업 예정자 동등학력 소지자
	목회학과 (주말반, 야간)	6학기	00명	
학술원	성경심화과정	2년	00명	목회자, 신대원 졸업자
평신도 성경연구반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세계화할, 4학기(1년) 평신도 지도자 과정 후 신학 과정에 편입할 수 있음			
특전	신대원 졸업자는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에 편입 가능 여목제도 있음			